



우수작

## 나는 현실이다

MBC <나는 가수다> 비평

이영제

### 경쟁에 익숙한 사회

“잠을 하루도 낮 놓고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가수다>(신정수 외 4인 연출)에 출연했던 윤도현이 탈락하던 날 그동안의 짐을 내려놓으며 뱉은 말이다. 하루의 경연이 끝나고 자문위원의 “오늘의 7위는…”이라는 말에 출연자들은 물론이고 시청자들까지 긴장감에 사로잡힌다. 1등부터 7등까지 차례로 매겨지는 순위. 청중투표단의 표를 얻지 못해 꼴찌를 한 가수 한 명은 탈락한다. 뛰어난 가창력과 경력을 지닌 이들의 틈에서 살아남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출연자들은 하나같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라며 각오를 다진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나는 가수다>에 일주일씩 꼬박 바치는 가수들의 모습, 어딘가 낯설지 않다.

“잠이 모자라 쉬는 시간마다 책상에 엎드려 토막잠을 자요.” 한국에서

청소년들은 대입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학생과 부모 모두 수능이라는 한 번의 경연에 모든 것을 건다. 잠을 줄여서라도 수능시험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오직 성적으로만 재단되어 순위 매겨진다. 낮은 등수를 얻게 되면 사회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단 수험생에게만 해당하는 문제일까.

<나는 가수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한경쟁’의 한 단면을 확대해서 보여준다. 매 경연 출연자 중 한 명이 떨어지는 서바이벌 방송 포맷의 핵심은 바로 이 경쟁에 있다. 심지어 노래라면 다들 한 가닥씩 한다는 일곱 명의 가수가 출연해 청중들의 심장을 빼앗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전설이라 불렸던 임재범, 국민 록밴드 YB, 알앤비의 요정 박정현 등 사회적으로 음악에 대한 평가가 끝난 이들조차도 무대로 불러 나와 그들도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한다.

가수들도 시청자들도 처음에는 이런 순위 매기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방영되기도 전부터 반대 여론이 있을 정도였다. 방영 초창기에는 김건모의 탈락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소라가 사회를 볼 수 없다며 무대를 박차고 나가는 일이 생기기도 했고, 제작진이 재도전 기회를 줘 방송의 물을 깎다는 여론의 공격을 받아 연출자가 교체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한경쟁’에 길들여지지 않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일시적인 거부감의 표출이었을 뿐이다. 가수들은 이내 무대와 게임 규칙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악을 질러서라도 청중들의 귀를 사로잡아 표를 모으기 시작했다. 시청자들도 가수들의 순위 매기기라는 비판은 거두어들이고 프로그램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코드인 ‘경쟁’이라는 코드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경쟁은 인간을 극한으로 몰아넣는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선 그 이상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방송은 경쟁에 내몰린 가수들의 모습을 가감 없이 비춘다. 온종일 가사를 외우고, 밤새워 편곡한다. 한계에 이른 몸은 망가지기 쉬워 가수들은 몸살을 앓고 목소리를 잃기도 한다. 그래도 무대 위에서 쓰러질 기세로 노래를 마치고 나서야 병원에 간다. 공연 전 대기실에서 안절부절못하고 자신의 공연 순서에 집착하는 모습 등 출연자의 긴장한 모습은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노출되고 전염된다. 경쟁에 내몰린 출연자들이 보여주는 이 사실은 잔인한 장면들은 시청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일이란 본디 그러한 일이기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기에 그렇다.

### 수단화에 익숙한 사회

<나는 가수다>에서 음악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김범수, 조관우 같은 이른바 얼굴 없는 가수들에게 노래할 기회를 마련해주었다고, 경력 있는 가수들이 수준 높은 노래를 들려준다고 ‘진정한 음악을 위한 방송’이라고 하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다. 음악 방송이 되려면, 가수들이 순수하게 음악으로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속의 가수들은 노래와 함께 그들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준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가수의 엄살 아닌 엄살도 그렇고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말도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한다. 가수 임재범에 시청자들이 열광했던 건, 그의 목소리에 담겨 있던 ‘한’의 정서에 반응한 것도 있지만, 노래에 덧붙여 임재범이라는 사람이 함께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임재범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르다 내레이션으로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이라고 읊조렸을 때, 현장에 있던 청중평가단과 TV를 통해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4분여의 노래 한 곡이 보여줄 수 있는 감동이었다기보다는 그동안의 방송에서 보여줬던 그의 캐릭터가 노래와 결합하였기에 가능한 장면이라고 보는 게 옳다. 결국 <나는 가수다>의 정체성은 음악을 도구로 감동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이다.

방송의 경연 장면 편집 또한 순수하게 음악을 들려준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지상파 3사의 대표 음악 방송인 <인기가요>나 <음악중심>, <뮤직뱅크>처럼 노래 한 곡을 온전히 들려주지도 보여주지도 않는다. 노래 중간마다 곡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가수들의 각오나 심경, 개그맨들의 중간평가 장면을 보여준다. 심지어 노래 전주가 시작하기 전에는 심장박동 효과음을 넣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음악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편집은 노래에 대한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나는 가수다>는 어느 음악 프로그램처럼 음악 자체를 위한 프로그램도 아니며, 음악은 철저하게 감동을 이끌어내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수능이라는 경쟁을 넘어선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취업을 향한 또 다른 경쟁이다.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구직자들에게는 다양한 스펙들이 요구된다. 자원봉사, 인턴, 외국어 점수 등 이력서의 한 줄을 온전히 채우기 위해 순수한 목적이어야 할 자원봉사와 희망 직무의 업무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다는 인턴 경험이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다. 우리 사회에서 경력은 점수화되고 이는 곧 취업으로 연결된다. 순수한 개인의 경험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취업을 위한 스펙이 대신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는 가수다>가 들려주는 수단으로서의 음악

에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지극히도 익숙한 장면이니 말이다.

## 자극에 익숙한 사회

취업을 하게 된 이들에게 경쟁은 또다시 시작된다. 바로 승진 경쟁이다. 빠지고 싶어도 회식 자리에 꼭 참석해야 한다. 더군다나 아이를 둔 워킹맘에게 야근과 회식 자리는 버거운 일이다. 아이를 선택하면 경쟁으로부터 도태될 수밖에 없다. 남자는 가정이 있어도 양육의 책임은 부인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다.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해선 돋보일 수 없다. 업무시간 이후도 엄연한 업무의 연장이다. 상사의 비위를 맞춰가며 점수를 따야 한다. 이때 조금 과장된 행동들은 용서된다. 무조건 튀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가수들은 청중평가단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고음 위주의 편곡을 선택하고 감정을 짜낸다. 조금 과잉이다 싶어도 어쩔 수 없다. 자극적이지 않으면 묻히고 만다. 항간에 ‘나는 악쓴다’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가 더 목소리를 폭발시키느냐, 감성을 자극하느냐가 중요하다. 가수 김연우가 탄탄한 가창력과 무대에도 불구하고 2주 만에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건, 그가 단순히 ‘노래’로만 승부를 겨루려 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자신만의 음색을 포기하고 무반주에 목에 핏줄을 세우며 ‘나와 같다면’을 열창했지만, 실수를 만회하긴 늦었다. 그는 쓸쓸히 무대를 떠나야 했다.

드라마가 줄거리를 통해 극적 긴장감을 조성한다면, 리얼리티 서바이벌 쇼인 <나는 가수다>는 현실감을 부각해 긴장감을 유지한다. 경연 순서에 일희일비하는 모습, 노래 시작 전 긴장해 떨리는 눈빛 등 현실감을 최대한 살린다. 줄거리를 사용하느냐 현실감을 사용하느냐 그 도구만 다를 뿐

<나는 가수다>는 예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드라마에 가깝다. 방송은 발단(출연자들이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전개(경연이 진행되고), 절정(결과가 발표돼), 결말(탈락자가 선정되는 순)의 구조를 따른다. 단순화시켜 보자면 전문 연기자가 출연하지 않을 뿐이지 그 자체로 한편의 완성된 드라마다. 예고편은 이다음 주에 새로이 출연하게 될 출연자에 대한 암시와 새로운 과제 부여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클로즈업은 <나는 가수다>의 주된 카메라 구도다. 카메라가 가슴 위부터 머리끝까지 잡거나, 전신을 비추는 구도는 겨우 화면 전환용으로 쓰이는 수준이다. 클로즈업으로 확보되는 출연자와 시청자 사이의 거리는 공연장 맨 앞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경험할 수 없는 극도로 가까운 거리다. 긴장한 가수들의 표정을 카메라는 아주 가까이 다가가 담는다. 출연자의 모공, 땀방울을 TV 화면을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긴장감 가득한 출연자의 표정은 불안하다. 불안한 구도에 담긴 불안한 표정이 주는 긴장감은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이된다. 출연자뿐만이 아니다. 관객들의 눈물 흘리는 모습도 클로즈업된다. 시청자들은 현실보다 더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켜보게 된다.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존 피스크(John Fiske)는 클로즈업 구도가 시청자에게는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긴장감을 주고, 그래서 주로 악인을 연출할 때 많이 쓰인다고 말했다. 과도하게 쓰인 클로즈업은 시청자에게 불안함을 안겨주고 그래서 자극적이다. KBS의 <열린 음악회>에서 카메라는 주로 무대 전체를 비춘다. 과도한 클로즈업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긴장감을 소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음악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다. 반대로 <나는 가수다>는 음악보다는 출연자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긴장감을 들려주는 데 힘쓴다. 본래 자극에 익숙한 시청자들은 <열린 음악회>로부터는 감흥을 느끼지 못해 멀리하게 되고 손에 땀을 쥐는 긴장

감을 맛볼 수 있는 <나는 가수다>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음악 방송에서 노래하는 아이돌 가수들의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라 불리며 개연성을 무시한 자극적인 줄거리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빼앗는다. 막장 드라마라고 욕먹으면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건 그만큼 시청자들이 자극에 익숙하고 또 즐긴다는 뜻이다. 자극에 길들여진 이들에게 평범한 이야기, 적은 노출은 시시하다. <나는 가수다>는 드라마 중에서도 막장 드라마를 닮았다. 클로즈업을 빈번하게 사용해 긴박한 화면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가수들의 순위를 매겨 일렬로 세우고 꼴찌를 탈락시킨다. 이러한 자극적인 설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인기도 없었을 것이다.

###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TV는 필연적으로 현실을 반영한다. <나는 가수다>는 현실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쟁, 수단화, 자극,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가수다>는 서바이벌 형식과 자극적인 편집으로 요리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쇼다.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부분은 프로그램이 스스로 경쟁, 수단화, 자극으로부터 안전망을 만들며 진화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1회 경연에서 2회 경연 후 탈락으로 규칙을 변경했다. 이는 경쟁에서 한번 도태된 자는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경쟁이 갖는 한계를 만회해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청중평가단이 1인당 한 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해, 1등을 뽑는 개념이 아닌 보다 좋은 공연을 고르는 방향으로 순위 선정 방법을 바꿔 한 명의 승자가 독식하는 폐해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시청자들의 음악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연의 무편집 버전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일부 출연자가 잦은 출연으로 꾸준한 인기를 구가해 프로그램에서 기득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예졸업이란 제도도 도입했다. 7회 연속 생존한 출연자를 자연스럽게 하차시키는 이 방안도 프로그램 속 경쟁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출연자들도 순위에 집착하는 모습보다는 탈락하지 않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수들끼리 극한의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격려하는 태도로 프로그램에 임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기에 프로그램에서 탈락하는 출연자가 ‘꼴찌 가수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받고 무대를 내려올 수 있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 가능한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 경쟁, 수단화, 자극으로부터 발생한 문제들을 포용할 수 있는 안전망이 부족하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나마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안전망을 제시한다면, 시청자들이 방송을 통해서 사회의 한 단면만이 아니라 희망도 찾아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나는 가수다>가 아름다운 패자, 순수한 음악,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길 기대해본다.